

과학기술서도 성의있고 참신하게

북디자인 등 내용과 장정에 좀더 신경 써야

김두식

해전전문대 교수 · 전자출판학

“교재니까 샀습니다.”

지난 해, ○대학 강의 중 어느 학생이 책 한 권을 보이면서 던진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 “전공과목 강의 교재니까 어쩔 수 없이 샀지만 속은 기분입니다. 출판사에 대해 커다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 학생이 보여준 책은 공학도서로서,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무늬가 1도로 어설픔게 그려진 표지에, 본문은 경인쇄로 제작되어 있어 인쇄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본문 중에는 짜깁기한 듯 군데군데 글자폭과 크기가 다르고 선명치 못한 곳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그래프나 회로도, 도표들도 다른 인쇄물에서 오려 붙인듯 어색하게 편집되어 있는 곳이 적잖게 눈에 띄었다. 한마디로 어디 한 군데 출판인으로서 의식이 배어 있는 곳을 찾을 수 없는 책이었다.

이 학생의 꾸밈을 듣고난 후 다른 학생들은 강의 교재로 채택된 도서에 대하여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여 간단한 조사를 해보았다. 정확한 통계수치는 산출하지 않았으나, 조사대상 학생 가운데 과학기술도서 관련 응답만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책값이 지나치게 비싸다 / 정성들여 만든 것 같지 않다 / 본문 인쇄 상태가 불량하다 / 디자인이 세련되지 못했다 / 맞춤법에 어긋난 글자가 많다 /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는(또는 애매한) 문장이 많다” 등.

근래 들어 성의 있고 참신한 모양으로 퍼

경직된 내용을 주로 다루는
과학기술 분야 책들은 독자에게
내용과 장정에 조화를 이룬
최적의 독서환경을 제공하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낸 과학기술도서들이 부쩍 많이 눈에 띄고 있다. 그러나 굳이 위와 같은 학생들의 반응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표지 디자인과 본문 편집 상태가 부실하거나 교정과 교열 작업이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과학기술도서들이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기술도서들의 장정이나 본문 처리가 다른 도서에 비해 뒤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잘 만든다고 더 잘 팔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도서들은 대부분 대학교재로 채택된다거나, 전공분야 전문인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어차피 구매하지 않으면 안될 책들이며, 한정된 저자로 인해 경쟁 출판물이 많지 않아 독점 내지 독과점 형태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의 구성은 내용과 장정이다. 여기서 내용이 저술자의 몫이라면 장정은 출판사의 몫이다. 이 두가지가 제대로 조화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책다운 책이 탄생되는 것이다.

저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감내하며 저술한 원고를 출판사에서 그저 읽을 수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가까스로 책의 모양만 갖추어 출간한다면 진주를 새겨줄에 꿰어 놓

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단순히 출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판사가 저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저버리는 것이며, 독자들에게는 ‘어떻게 만들더라도 안 사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상업적 오만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80년대 후반부터 디자인이 뛰어난 문예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독자들이 책을 보는 시각도 단순히 내용에만 치우치지 않고 있음은 출판인이라면 누구나 실감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배고팠던 시절의 생활에 쫓겨 사는 독자가 아니다. 이 시대의 독자들은 생활의 여유와 미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디자인 감각도 예사롭지 않다.

책 모양새는 출판사의 몫

독자들이 어쩔 수 없이 구매했지만 모양새를 보았을 때 결코 사고 싶지 않은 물건으로서 책이 치부된다면, 좁게는 그 출판사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될 것이며, 넓게는 지식과 문화의 상품으로서 책은 권위와 신뢰를 잃게 된다. 혹자는, 대부분 학문적 또는 학습적 내용을 담고 있는 과학기술도서에

굳이 디자인 개념을 도입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물론 책을 아름답게 꾸몄다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디 책뿐이겠는가. 사람도 잘 차려 입었다고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차려 입었는가에 따라 자신의 권위와 사회적 위상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예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책도 마찬가지이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효율적이고 수준 있는 디자인으로 펴냈을 때 독자는 그 내용에 대해 더 큰 설득력을 느끼게 되며, 신뢰도 역시 높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효율적인 디자인은 독서에 바람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의 러셀(Russell N. Baird) 교수는 그의 저서 《커뮤니케이션의 그래픽》(The Graphics of Communication)에서 “디자인은 인쇄매체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극대화시킨다”고 했다. 이는 같은 내용이라도 효율적인 디자인에 의해 독자의 흥미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식 습득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 문예물과는 달리 진부하고 지루함을 쉽게 느끼는 경직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도서들은 독자들에게 최적의 독서환경을 제공하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출판사는 출판물에 과학적인 디자인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

출판 디자인의 모든 것



다름기획, 디자인의 비상구입니다.

DR 단행본 · 사보 · 학습지 · 각종 홍보물
다름기획

DARUM Publication Design Planning TEL: (02)707-0572 FAX: (02)707-2975

다름기획의 장인정신

쪽빛을 찾는 사람들

쪽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오묘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그 맑고 푸른 빛을...

옛 장인(匠人)은 그 빛 하나를 얻기 위해

‘쪽풀’을 찾아 세상 천지를 헤매다녔으며,

갖은 정성으로 그 빛을 뽑아 쪽빛 물을 들였습니다.

진정한 장인정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
바로 다름기획의 마음가짐입니다.

DR 단행본 · 사보 · 학습지 · 각종 홍보물
다름기획

DARUM Publication Design Planning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8번지 성지빌딩 1208호 TEL: (02)707-0572 FAX: (02)707-2975